

허공이 법신... '알음알이' 내지 말라

만약 결정코 허공이 있다고 한다면, 허공은 법신이 아니다. 또한 결정코 법신이 있다고 한다면, 법신은 허공이 아니다. 허공이라는 알음알이를 버지 말라. 허공이 곧 법신이다. 법신이라는 알음알이를 버지 말라. 법신이 곧 허공이다. 허공과 법신이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부처와 중생도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생사와 열반도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번뇌와 보리도 서로 모양이 다르지 않다. 일체의 모양을 여림이 곧 부처다.

일체의 모양 가운데 모양을 여린 실상이 있다. 허상을 버려야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허상과 실상이 함께 하고 있다. 허상에 깃달려서 실상을 놓치고 따로 찾고 구하면 안 된다. 허상 그대로가 실상임을 알아야 한다.

범부는 경계를 취하고 공부인은 마음을 취하나, 마음과 경계를 함께 있어야 참된 법이다.

경계도 마음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내려놓는다고 하지만, 내려놓고 내려놓지 않고에 관계없이 본래 내려놓은 것이다. 따로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도 허물이 된다.

경계를 잊기는 오히려 쉬우나, 마음을 잊기란 매우 어렵다. 사람들이 마음을 감히 잊어버리지 못하는 까닭은 공(空)에 떨어져 잠을 못이 없을까 두려워해서다. 이는 공이 본래 공이라 할 것도 없고, 오로지 한결같은 참된 법계(眞法界)임을 몰라서 그런 것이다.

마음은 잊을 수 있고 없고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니다.

이 신령스런 깨달음의 성품은 비롯함이 없는 옛날부터 허공과 수명이 같아서, 일찍이 생기거나 없어진 적이 없으며, 일찍이 있는 적도 없는 적도 없다.

진공은 있고 없고의 모습이 아니다. 공이 전이다. 진공은 어디서 어디까지 한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지거나 없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를 도저히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 가운데 무언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기운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부처, 마음, 열반, 불성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일찍이 더럽거나 깨끗한 적도 없고, 시끄럽거나 고요한 적도 없으며, 절지도 늙지도 않고, 방위와 처소도 없으며, 안팎의 구분도 없다. 수량도 없고, 형상도 없으며, 색상도 없고, 음성도 없다. 그러므로 찾을 수 없고, 구할 수 없으며, 지혜로써 알 수도 없고, 언어로 표현할 수도 없으며, 대상으로서 파악할 수도 없고, 또한 애써 노력한다고 해도 이를 수 없다.

그 자리에는 지혜로도 다다를 수 없다. 지

수불 스님의 전심법요 선행 <13>



범어사 주지

허상을 버려야 실상 드러나는것 아니다

허상 그대로가 실상임을 알아야 한다

경계도 마음도

따로 내려 놓으려 하면 허물이 된다

지혜는 번뇌 없애기 위해 잠시 빌려온 '약'

일체의 마음이 없으니 일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본래 청정한 부처위에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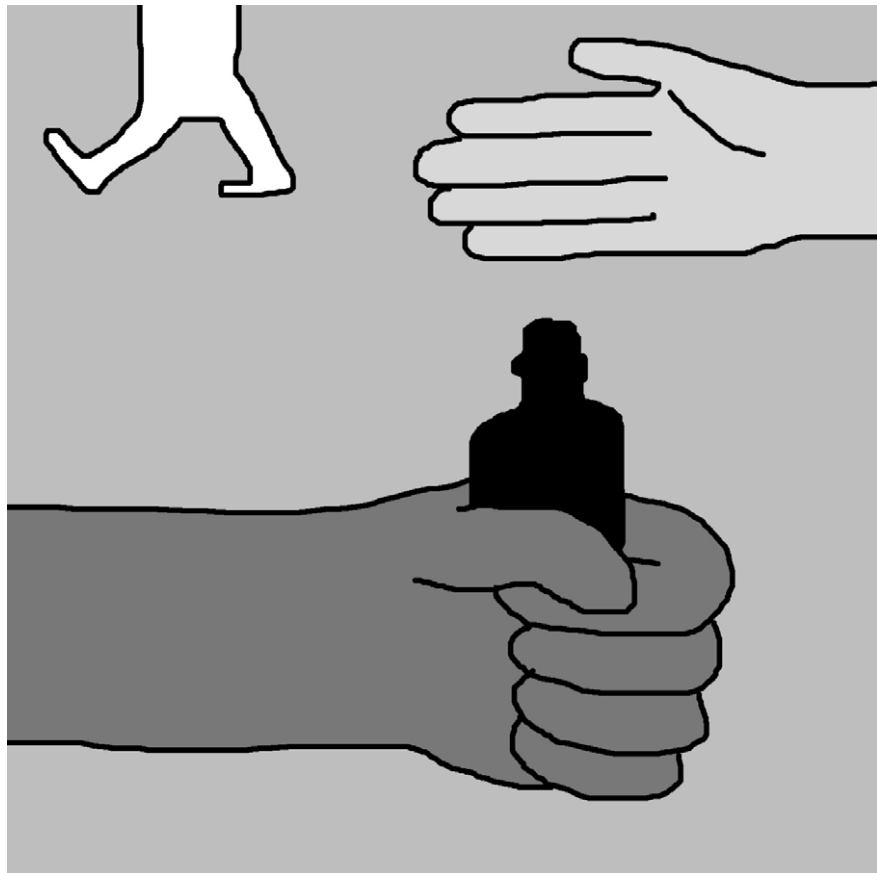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해초자도 허물이 되기 때문이다. 지혜라는 것도 번뇌를 없애기 위해 잠시 빌려온 약일 뿐이지, 본래는 병도 약도 없는 것이다. 본래 그림자도 없는 것이지만, 그림자가 있는 줄 아는 사람에게 짐짓 없앨 수 있는 수단을 보여주고 거기에 잠시 머무르게 했을 뿐이다. 그림자가 없어진 뒤에는 수단까지 버리도록 기회를 제공했음에도, 사람들은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 이것이 경계는 벗어났어도, 마음에 집착하여 매달려 있는 것이다.

마음으로써 다시 마음을 구하지 말고, 부처를 가지고 다시 부처를 구하지 말 것이며, 법을 가지고 다시 법을 구하지 말라. 그러므로 도를 배우는 사람은 당장에 무심하여 묵연히 계합할 뿐, 마음으로 헤아리면 곧 어긋난다.

말면 이렇게 되지만, 모르면 일부러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부른다.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르다보니, 말 배운 대로 이치로 받아들여서 거기에 머물게 된다.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이것이 경건이니, 밖으로 경계를 좇으면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잘못 알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이것은 도독을 자식으로 잘못 아는 것과 같다.

전해야할 어떤 마음이 있어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주되 준 바 없이 주고, 받되 받은 바 없이 받는 것이다. 주고받는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일체 모든 대대(對對)가

끊어진, 절대 평등의 경지에서 일련의 일들을 소화해야 한다.

탐·진·치가 있기 때문에 계·정·혜를 세워 말씀하신 것이다. 애초부터 번뇌가 없다면 깨달음은 어디 있었는가?

탐·진·치 삼독이 계·정·혜 삼학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그것도 제도해야할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다. 본래는 제도해야할 모습이 따로 없다. 그래도 중생에게 어리석음이 있다고 해야 믿음을 내는 사람을 위해서, 제도할 것을 전제하고 단계를 시설해서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자리로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서 일체 법을 말씀하신 것은 일체의 마음을 없애기 위함이다. 나에게 일체의 마음이 없거늘, 일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하셨다. 본래 청정한 부처 위에 다시 한 물건도 덧붙이지 말라.

아무리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고 일러줘도, 중생은 자기도 모르게 자주 덧붙이려 한다. 덧붙여지든 덧붙여지지 않든 다 소화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 어떤 변화가 와도 특 터진 허공과 같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조그마한 가시가 박혀도 견디지 못하고 뒤집어질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선지식의 지남 아래 도반들과 함께 해야 한다고 전해오는 것이다.

김호성 교수의 에세이 경구 ㉓



끈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다

(유마경)

좌우명 이야기

길 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정표만큼 큰 도움을 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럼 삶이라는 여행에서 이정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좌우명(座右銘)이 아닐까. 그래서 나 역시 좌우명을 하나 정해놓고 있다. 바로 '직심(直心)과 대비심(大悲心)'이다. 시적이지는 않지만, 나로서는 이 이상 더 간절하게 염원하는 말도 달리 없다.

내 좌우명의 출전은 대승불교의 총론이라 평가받는 <대승기신론(大乘起信論)>이다. <대승기신론>에서 '발심(發心)'을 말할 때, 어떤 마음을 발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세 가지 마음(三心)을 제시한다. 직심, 심심(深心), 그리고 대비심이다. 나는 이 세가지 마음 중에서 중간에 등장하는 '심심'의 경우를 제외하고서, 직심과 대비심만으로 나의 좌우명을 삼았다. 심심을 제외하고 직심과 대비심만으로 축약해 놓고 볼 때, 더욱더 강렬하게 여필되는 것처럼 생각되어서이다.

그 강렬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양자 사이에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모순이 나의 내면의 모습이며, 나의 삶이라 생각하고 있다. 물론 그 모순의 극복을 위하여 내 좌우명이 필요해졌다.

심각해 보라. 직심은 끈은 마음이고, 대비심은 등골계 완만한 마음이 아닌가. 직심은 법대로 하는 마음이고, 원칙을 따르는 마음이다. 반면에 대비심은 너그러운 마음이다.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이다. 직심이 칼로 자르는 마음이라고 한다면, 대비심은 칼을 내다버리고 상대와 포용을 나누는 마음이다.

내게는 직심과 대비심이 언제나 충돌한다. 그래서 '모순' 된다고 했다. 어느 때는 직심을 발하고, 어느 때는 대비심을 발한다. 내가 직심을 발할 때 어느새, 내 안에서 대비심은 사라진다. 마찬가지로 내가 대비심을 발하려고 될 때, 직심 역시 슬그머니 뒷문으로 나가버린다.

부처님은 이 두가지 마음 사이에 적절한 조화를 이루신 분이시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왔다갔다 할 뿐이다. 그것이 내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나는 직심과 대비심을 잘 조화할 수 있을까? 내 평생의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직심이 출발점이다. 직심과 대비심이 모순되고 충돌하고 있지만, 나로서는 직심을 더욱 귀하게 생각

한다. 직심이야말로 심심을 향할 때나, 대비심을 향할 때나 그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직심을 가진 사람이 드물다는 점이다. <대승기신론>에서는 직심을 '율바로 진여(眞如)의 원칙(法)을 염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진여는 진리 그 자체이다. 그리고 나는, 지금 이 문맥에서 '법'을 '원칙'으로 옮겼다. 진리 그 자체를 굳게 지니고,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마음이 직심이다. 보다 평이한 우리의 일상언어로 옮긴다면, 정직이다. 정직이 바로 직심이다.

오늘날 과연 우리 사회에 '정직'이라는 원칙이 존재하거나 할까? 정치나 경제에 대해서는 차라리 문지를 말자. "그러려니?" 해야 할지도 모르는 세계이니가 말이다. 하지만 종교인들은 어떤가? 교육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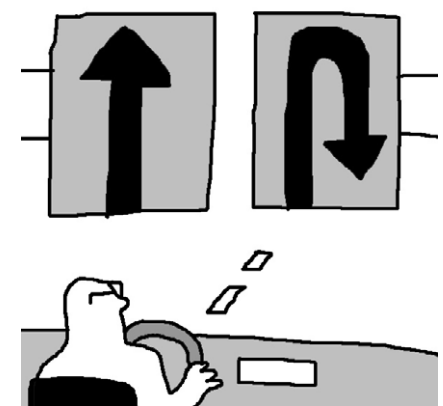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들은 어떤가? 아마도 쉽게 자신있는 대답이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사회의 비극이다.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분이 없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왜 직심을 지녀야 한다는 말인가? 직심이야말로 수행(宗敎)과 학문(敎育)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이유이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직심을 지니지 않는다면, 원칙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정직보다 거짓이 판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근래 그러한 사례가 많이 보고되었다. 바로 유명인이나 공직자의 논문표절 문제 가 바로 그것이다. 역시 "직심을 도량으로 삼지" 않아서이다. 직심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도량'은 '극락'이라는 말이다. <유마경>의 메시지는 이렇다. '불국토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 직심으로 살 수 있다면, 바로 지금이 극락이다!'

동국대 불교학부 교수

범주스님 선묵화 교실



선(禪)예술 문화원 서울 지부 제1기 회원모집

선묵화를 생활 속의 수행 방법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열린 공간

교육 내용

▶ 매월 2회 범주스님 직접 지도

1. 불교의 핵심 강의
2.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명상
3. 체계적인 선묵화 수련

교육 안내

1. 기간 1년 (각회 수련 3시간)
2.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입회 문의처 : Tel.(054) 535-0378

선(禪)예술 문화원

퇴행성 류마티스 디스크환자 희소식

관절염·통증

관절 연골을 보충해주는 한약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잠도 편하게자 7일 ~ 10일이면 호전되는 느낌있어!!!!

◆한의원 문의상담 02)598-9833

희 소 식

당뇨·고혈압

당뇨 천연 인슐린 개발 5일~7일이면 호전되는 느낌!!!

여주(모모르디카)하나로 해결!!! 보험보다 낫다. 방송에서도 식물 인슐린 여주(모모르디카)

화 제 집 중!!!

식물 인슐린 이름값 하네 혈당 강화!!! 항암효과 원기회복 관상식물의 반란!!!

◆주문상담문의 02)875-8858

맥스생명공학 ※대리점 모집중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행복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임발성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똥똥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속편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는지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월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월빙」을 치세요.